西坡 吳道一의 文學論 硏究

김영주*

‖ 차 례 ‖

1. 서론
2. 文學論
   1) 文變論과 眞見의 강조
   2) 言志論과 和暢性情·賁飾治道
   3) 造化作用과 純粹 情緖로서의 天機
3. 결론
□ 참고문헌

【국문초록】

서파는 문학사의 추이를 '才文世降'의 하강·쇠퇴의 측면에서 이해하였다. 그는 당대의 俗化되거나 藻華를 숭상하는 자들은 단순모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古文으로 今文의 비루한 습속을 변화시켜 鋪張·潤色의 아름다움을 다하고 국가의 번성을 표현한다면 문장의 기능〔用〕과 아름다움〔美〕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식에 중세적인 사회윤리개념의 회복을 사상적 기저로 삼아 韓愈의 貫道論을 수용하여 道文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道와 經術을 나무의 뿌리로, 文章을 열매로 비유하여 전자와 후자가 결코 별개가 아닌 相補的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文章에서 文藝趣向의 것보다는 經術과 관련되는 實用文類에 중심을 두고 文章의 가치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見○○', '效○○', '入○○' 등을 학문의 경향성을 대변하는 용어로 규정하여 특정한 경향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이념적 구속에서 자유롭기를 제안하였다. 이것에 연계하여 문학에서도 특정한 典範에 얽매이기 보다는 연구대상의 內涵에 대한 이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해와 체득을 통하여 人慾이 다하고 天理가 流行하는 窮極의 경계, 사물의 참된 모습 즉 '眞見', '眞情'을 발견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文學 典範의 설정에 대한 그 자신의 부정과는 달리 李白·杜甫·韓愈를 文章의 三大家로 추숭하고 이들을 典範으로 설정함으로써 문학적 전범의 구속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詩의 본질에 대하여는 『書經』의 '詩言志'의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를 수용하여 나름의 독특한 해석을 덧붙였다. '意'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 '情'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情이 '心之所之'의 의미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詩의 본질을 '言志'에서 '言情'의 영역에까지 확장시켰다.

詩의 기능으로는 性情을 和暢하게 하고 治道를 賁飾하는 점을 거론하였다. 그가 의미하는 性情은 朱子를 비롯한 李滉·李珥 등이 강조하는 '本然之性', '性情之情'과 다른 시각에서 心性의 본원적 순수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閭巷의 謳謠인 『詩經』의 가치를 수많은 문장가들의 유명한 작품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聲律·排比·擬古的 模寫 등의 시의 형식적 측면에의 경도를 비판하였다.

17세기 이후의 조선 문단에서 주목받는 '天機'에 관하여는 자연물태에 대한 觀物 → 認至理 → 興動 → 天機活에 이르는 인식을 거쳐 '天地의 機密, 造化의 作用 혹은 天地自然의 理法的 秩序'로서의 본원적 의미 외에 '인간의 純粹한 情緖의 발출이며 詩人의 情에 밀접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점은 서파 보다 조금 뒷시기의 金昌協이 天機의 誤用으로 인한 폐해의 유발을 우려하여 自然의 道나 性情과의 관련 속에서 天機를 이해한 것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 동시에 人間에 대한 신뢰, 인간의 情緖 표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才文世降, 相補的 道文觀, 眞見, 眞情, 詩言情, 和暢性情, 賁飾治道, 天機

1. 서론

조선 역사상 17세기는 격동의 시대이다. 국외적으로는 明淸의 교체라는 큰 정세 변화와 국내적으로는 2차례의 胡亂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경제적 피폐를 야기하였으며 終戰 후에는 國家再建을 주창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 문학에도 영향을 끼쳤다.[1]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수입된 明末의 前後七子의 創作論의 영향과 조선문단의 내부적 요인[2]으로 秦漢古文派가 성립되지만 이들의 문학적 성향은 이후 李植·金昌協·李宜顯 등에 의해 비판되고, 창작의 典範 설정 자체를 거부하는 燕巖그룹에 의해 재차 비판당한다.[3] 이와같이 다양한 문예사조가 수입되는 상황에서도 문인들은 여전히 朱子學的 道文一致의 規範性과 統一性에 安着하였다. 특히 17세기 초반의 조선사회에서는 지배사상에 대한 회의나 도전의 혐의가 있는 諸文學的 경향에 대해 朱子學을 고수·확산하려는 當代의 지배계층의 문학방면의 대응이 古文論에 반영되기도 하였고[4], 그것으로부터 부분적으로 脫避하려는 현상이 동시에 확인되기도 하였다.[5]

16세기 중반~17세기 초의 詩壇은 三唐詩人과 二才의 주도하에 學唐을 근저로 인간의 감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詩的 緊密度를 고취하여 詩體의 규모를 확대하고 盛唐의 운치를 표현하는 등 이전의 詩作에서 나타나

---

1) 18세기는 黨爭의 격화기로 소수의 京華世族과 閥閱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어 대다수 사대부가 정치·경제적 몰락을 겪으면서 黨派 등 사대부들간에 형성된 폐쇄적 공간 속에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2) 金正國은 「文範序」에서 『文範』에 수록된 글이 『史記』와 『漢書』에서 가려 뽑은 것이라고 하였다.(『思齋集』 卷3, 『叢刊』 V 23, 43면.) 또한 己卯士林들이 秦漢古文을 전범삼고자 했음은 이후의 尹近壽의 「月汀漫錄」의 "己卯諸賢一時之論, 以爲文則法漢, 書則法晉, 詩則學唐, …中略… 至於冲菴自庵輩, 古文雖未成就, 皆矩矱漢文者也."(『月汀集·別集』 卷4, 『叢刊』 V 47 379면)에서 볼 수 있다

3)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秦漢古文派의 성립」, 『한국한문학연구』 18집, 한국한문학회, 1995, 304~305면 참조.

4) 李植(1584-1647)이 당대의 문장을 異端之文과 聖賢之文으로 대별한 것이 그 예이다 (우응순 「17세기 古文論의 背景과 歷史的 性格」, 『고전비평 연구 1』, 태학사, 1997, 58~59면 참조)

5) 許筠(1569-1618)과 李睟光(1563-1628)·張維(1587-1638) 등은 朱子學的 文學觀을 인정하면서도 작가의 個性과 審美性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의 형상성에 주목하였다.

는 섬약한 기세와 몰개성, 주제의식의 미비 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鄭斗卿(1597-1673)·李敏求(1589-1670)·金得臣(1604-1684) 등은 格調와 識見을 강조하며 『詩經』과 漢魏盛唐詩를 典範삼아 17세기 詩史의 큰 줄기를 바꾸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古詩와 樂府詩의 가치를 발견하여 그들 詩體의 작품을 적극 창작함으로써 學唐의 굴레를 벗어나는데 일조하는 한편 明代의 復古的 詩論을 수용함으로써 詩作에서 노정된 詩語의 踏襲과 擬古 ; 虛僞的·戱作的 描寫 등의 부정적 경향을 노정하여 이후 金昌協(1651-1708)·金昌翕(1653-1722) 등에 의해 비판받는다.[6]

김창협 등은 18세기 한시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格式과 規範으로부터 탈피하여 시인의 個性을 추구하고 詩作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여 眞實한 표현과 事實的 描寫를 주로하는 새로운 創作 경향을 제시하며 이전의 擬古主義的 경향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시기의 대표적 문장가의 한 사람이 西坡 吳道一(1645-1703)[7]이다. 『朝鮮王朝實錄』의 卒記[8]에 의하면 그는 인물됨이 倜儻하고 聰明이 무리에서 뛰어났다. 그의 風致는 사람을 움직일 정도였고 文辭는 넉넉

---

6)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17~55면 참조.

7) 吳道一(1645-1703)은 본관이 海州, 자는 貫之, 호는 西坡이다. 그의 家系는 高麗 檢校 軍器監을 지낸 吳仁裕에서 비롯된다. 高祖 吳景閔이 司憲府 監察을 역임한 것을 비롯하여, 曾祖 吳希文은 繕工監役 贈議政府 領議政이 되었다. 祖父 吳允謙은 議政府 領議政을 역임하였고 세상에서 楸灘先生으로 일컬었다. 아버지 吳達天은 宗親府典籤 贈吏曹判書에 제수되었다. 외가는 漢陽 趙氏로 儀賓府 都事 趙幹이 외조부이다 그의 妻는 豐壤 趙氏로 趙復陽의 딸이며 妻祖父는 趙翼이다. 繼室은 延日 鄭氏로 鄭淹의 딸이다

8) 『肅宗實錄 3』 卷38(『朝鮮王朝實錄』Ⅴ.40), 33면. "己丑, 前判書吳道一, 卒於長城謫所. 道一倜儻有俊才, 聰明超類, 風致動人, 文辭亦贍敏. 外似樸疎, 內實機警, 居臺閣, 主張淸議, 自勵風節, 爲一代士流所推許. 律己淸白, 世以冰蘗許之. …中略… 上, 亦奇其才多, 被曠世異數. …中略… 甲戌論師命等疏, 固人所不敢言, 而被黨人, 怨嫉益甚, 道一, 亦因此益激, 爲趨勢喜事者所宗, 行止放倒, 屢遭顚蹇, 有進無退, 及有科査及彦良獄, 橫被誣衊黨人, 遂傳會鍛鍊, 竟以謫死."

하고 민첩하였다. 臺閣에 있을 때는 淸議를 주장하여 風節을 힘써서 士類의 존경을 받았고, 淸白함은 세상에서 氷蘗으로서 인정받았다. 이로인해 肅宗도 그의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9]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나 黨論을 주장하여 李師命 등을 논핵한 상소(1694년)로 老論의 원망과 미움을 받아 마침내 適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한다.[10]

서파의 사승내력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15세 무렵 趙宗著(1631-1690)에게 수학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학문경향은 文集의 작품[11]을 통해 볼때, 대체로 性理學에 경도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점은 같은 少論系인 尹拯(1629-1714)·朴世采(1631-1695) 등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와 10세 때부터 교유한 崔錫鼎(1646-1715)[12]이 儒家的 입장에서 陸王學을 이해하고 朱子學의 한계를 비판하여 斯文亂賊으로 내몰린 朴世堂(1629-1703)을 옹호하던 학문경향과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의 官僚的 면모는 春川府의 防營 설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린 疏[13], 공납할 꿀의 생산 감소로 인한 산골 백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

---

9) 「年譜」, 『西坡集』 卷29(『韓國文集叢刊』 V 152), 553면 "一日講訖, 上曰, 曾在丙辰冬, 爾入於史廳 而爲姜碩賓所狙擊, 予當時不察其黨伐之意矣 其後諸臣多言爾之文學 觀於近日筵中, 則爾之文學 果卓異矣 時與副修撰朴公泳, 同承恩諭, 而華袞之獎, 傳出千古 一時榮之"

10) 吳道一은 주로 文翰職을 역임하였으며 그외 조정의 實務와 관련된 요직을 두루 거쳤다(「年譜」, 『西坡集』 卷29 552~583면 참조)

11) 「原理氣不相離說」(18세)을 비롯하여 存心養性을 學으로 정의한 「原學」(19세) 性命·理氣의 근원, 讀書·窮理의 방법, 操存·窮格의 要諦 및 人倫 日用의 實踐, 盡心·處事의 要領 등에 대한 先儒의 글을 읽은 느낌을 기록한 122 조목의 「困得篇」(26세), 「大學正心問答」(26세), 「自警文」(28세), 「養心閑銘」, 「敬以直內箴」 「危者安其位, 亂者有其治」 등과 佛敎의 폐해를 지적한 「釋迦」 등

12) 崔錫鼎 이외에 吳道一과 교유하던 인물로 함께 湖堂에서 賜暇讀書를 한 趙持謙·林泳·朴泰輔·李喬·徐宗泰·韓泰東·兪得一 등이 있다(「年譜」, 『西坡集』 卷29, 557~558면 참조)

13) 「論春川府防營設置不便事狀」, 『西坡集』 卷16, 316~317면

여 올린 蜂桶革罷의 疏, 불필요한 大同田의 마련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 가중에 대한 상소[14] 등 민생의 便利를 위한 노력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문학창작에 대한 서파의 견해는 위에 언급된 師友와 다른 독특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조선후기의 문장가들이 血緣·學緣·黨脈 등에 의해 학문의 경향성이나 문학창작 성향에서 공통성을 갖는 한편 개성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파는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復古와 擬古에 대한 비판이 복잡하게 뒤얽힌 문단의 상황 속에서 성리학적 학문 사상과 개성적인 문학창작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문장가들 보다 진전된 문학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문학론이 17세기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지만 模倣과 剽竊에 대한 반대, 특정 典範의 설정 거부, 文의 가치 긍정, '진실'과 '순수'라는 차원에서의 閭巷謳謠의 가치 긍정, 天機에 대한 나름의 인식 등을 통하여 진정한 문학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서파의 文學論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에 먼저 그의 문학론을 검토함으로써 그의 문학세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15]

2. 文學論

1) 文變論과 眞見의 강조

"文이란 道를 꿰는 器物이다. 이 道에 깊지 못하고서 이름이 있는 자는 없다."[16]

---

14) 「論蜂桶革罷便宜區處事, 仍陳大同量田便否」, 『西坡集』 卷16, 317~319면.

15) 본고에서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간행한 『韓國文集叢刊』 V.152의 『西坡集』을 텍스트로 하였다.

위는 古文家의 중요한 이론의 하나인 文·道의 관계를 언급한 李漢의 「昌黎先生集序」의 일부이다. 韓愈는 古文을 하는 이유가 文章 體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古道의 학습과 文辭에 兼通하기 위해서이며 본래의 의도는 바로 '古'라고 하였다.[17] 그가 말하는 '道'는 '獨善自養' 보다는 '兼濟天下'의 강조, 社會危機에 대한 관심, 老佛思想에 대한 반대, 人材選拔의 중시 등이다.[18] 이 점은 西坡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19]

> 文이란 貫道之器이다 道에 深奧하지 못한 文章은 末端的인 것이다. 최경천은 젊고 왕성하기에 만약 經術에 本源을 두고 차츰 침잠하여 시대를 오르내린다면 진전은 진실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외에는 별도로 권면할 만한 말이 없다 漢唐 이하의 여러 작가들 가운데 韓愈의 文章이 八代의 쇠미함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뿌리가 무성하고 열매가 탐스러웠기 때문이다.[20]

西坡가 말하는 '道'는 人君의 典學·誠身·化民·成俗 등이다. 이것은

---

16) 李漢, 「昌黎先生集序」, 『韓昌黎集』, 상무인서관, 1958 1면 "文者, 貫道之器也 不深於斯道, 有名者不也"

17) ① 「答陳生書」, 『韓昌黎集』 卷16 62면 "愈之志在古道, 又甚好其言辭?" ② 「答李秀才書」, 『韓昌黎集』 卷16 61~62면 "愈之所志於古者, 不惟其辭之好, 好其道焉爾" ③ 「題歐陽生哀辭後序」, 『韓昌黎集』 卷22, 47면 "愈之爲古文, 豈獨取其句讀, 不類於今者邪? 思古人而不得見, 學古道則欲兼通其辭 通其辭者, 本志乎古道者也."

18) 郭預衡 『中國散文史, 中』 上海古籍出版社, 2000 175~178면 참조.

19) 吳道一은 「釋迦」(『西坡集』 卷19 379~380면)에서 불교의 폐단이 倫紀를 끊어버리고 君親을 버리며 惑世誣民하는 점이라고 논박하였다 특히 그가 큰 폐해로 지적한 점은 국가의 경영과 관계되는 부분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절이 곳곳에 지어짐으로써 산과 들의 경작지가 감소하고 중의 숫자가 증가하여 軍役을 면제받는 사람이 늘어서 軍政이 피폐해지는 점 등을 거론하며 儒家의 興行과 至治를 이루기 위해서는 佛家를 息滅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20) 「贈崔擎天勸讀韓愈文小序」, 『西坡集』 卷17 333면 "文者, 貫道之器, 不深於道則末也 擎天年富力强苟能本源經術, 浸淫而上下之, 則其進固不可量也 此外無別語可以相勉者, 而自漢唐以下諸家, 昌黎文之所以起衰八代, 以根茂實秀故也"

仁義道德이나 倫常關係의 회복 즉, 중세의 봉건적인 신분제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서파의 古文理論의 사상적 기저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가 한유의 '貫道論'을 수용하여 道文의 관계를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道의 깊이 있는 체득을 바탕으로 西坡는 經世義理之文의 창작을 강조하였다. 그는 道와 經術을 나무의 뿌리로, 文章을 열매로 비유하여 전자와 후자는 相補的이라고 주장하였다.[21]

그렇다면 文과 時代變化에 대한 西坡의 인식은 어떠한가? 文變에 대한 認識은 古文家의 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 대저 古人은 辭命의 得失로 국가의 盛衰를 점쳤다. 그러나 辭命을 짓는 이들의 才量이 時代와 더불어 점차 낮아지고 文도 날로 피폐해져 本實을 숭상하는 자는 급히 비루하여져 속된 것에 가까워지며 藻華를 숭상하는 자는 읽기 어려운 文章을 지어 俳體와 비슷하여 심지어는 牛鬼처럼 虛幻·愧誕하고 狐白裘가 淸廉을 해치는 듯 점차 수준이 비루하고 낮아져서 바로잡을 수 없다. 보고 베낄 견본을 위해서 창문을 부수고 가지러 갔다는 비웃음[22]이나 본대로 줄풀을 따라 그리는 듯한 습관이 오늘날에는 극도에 이르렀다. 이것은 학습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것인가? 배양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氣數가 관여하는 바여서 人力을 용납할 수 없어서인가? 만약 古文을 가지고 今

21) 草木의 비유를 통하여 經術·文章이 별개일 수 없음을 강조한 내용은 조선전기의 金宗直이나 조선후기의 金邁淳 등의 경우에서 확인된다. : ① 「尹先生祥詩集序」, 『佔畢齋集』文卷1(『叢刊』Ⅴ.12), 413면 "經術之士, 劣於文章, 文章之士, 闇於經術. 世之人有是言也. 以余觀之, 不然. 文章者, 出於經術, 經術乃文章之根柢也. 譬之草木焉. 安有無根柢而柯葉之條鬯, 華實之穠秀者乎? 詩書六藝, 皆經術也. 詩書六藝之文, 卽其文章也. 苟能因其文, 而究其理, 精以察之, 優而游之, 理之與文, 融會於吾之胸中. 則其發而爲言語詞賦, 自不期於工而公矣, 自古, 以文章鳴於時而傳後者, 如斯而已." ② 「石陵稿自序」, 『臺山全書』冊2(계명문화사, 1985), 538면. "夫文之雋者, 華實必兼. 本末必具. 本實未足以稱, 而華與末, 又不能以相補. 則其文之拙可知也."

22) 唐의 陽滔가 中書舍人이 되었을 때 급히 敕文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令史가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견본이 없었다. 그래서 곧바로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斲牕舍人'이라고 불렀다.

文을 고쳐서 한번 비루한 습속을 변화시키고, 용을 아로새기고 봉황을 토해내는 듯한 문장에 뛰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翰林院에서 詔書의 초안을 만들 때, 서로 잇따르고 실력을 발휘하여 마음대로 글을 짓게 하며 능히 鋪張·潤色의 아름다움을 다하여 국가의 번성함을 크게 울릴 수 있게 하려면 그 방법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겠는가?[23]

서파는 국가간의 聘會·往來 등의 외교적 言辭에 사용되는 辭命으로 국가의 흥망을 점친다는 전인의 말을 수용함으로써 실용적 측면에서의 文章의 가치와 그 필요성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辭命을 짓는 이들의 才量과 世道가 점차 낮아지면서 文章 역시 날로 피폐해졌다고 서술하였다. 그것의 실제적 현상으로 本實 즉 道를 숭상하는 자들의 문장이 급속도로 俗化되고 藻華를 숭상하는 자들은 광대처럼 남을 흉내내어 독창성이 결여됨을 지적하였다.

비록 서파가 '才文世降'의 認識에서 역사의 추이를 하강·쇠퇴의 측면에서 이해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결코 극복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西坡는 모친상(1670년)을 당하여 哭泣하고 饋奠하는 외에 外誘도 없고 日用에 마음 쓸 곳이 없는 틈을 타서 四書·心經·近思錄·朱子書·조선조 先賢의 저서 등을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洙泗 이후 先儒의 性理·理氣의 根源, 人倫이 날마다 사용하는 常道, 讀書·窮理의 방법, 存心·處事의 요목 등의 학설에 대하여 潛心하고 玩意하였다.[24] 이 가운

---

23) 「制誥」, 『西坡集』 卷19, 378~379면. '大抵古人以辭命得失, 卜國盛衰 而才與世降, 文以日弊, 尙本實者, 蒼陋而近俗, 務藻華者 鉤棘而類俳, 甚至牛鬼涉誕 狐曰傷廉, 寢以卑下 莫可抶正, 斲牘之誚 畵葫之習, 至于今日而極矣 學習之乖方而然歟? 培養之失宜而然歟? 抑氣數所關 有不可容人力歟? 如欲挽古塗今, 一變陋習, 使雛龍吐鳳之手, 接武掉鞅於詞垣視草之地 克盡鋪張潤色之美, 而大鳴國家之盛, 則其道何由?'

24) 「困得篇, 上」, 『西坡集』 卷27, 520면 "歲庚戌春, 余纍然居憂服之中, 而哀苦之餘, 無他外誘 日用之間, 無所用心, 於哭泣饋奠之暇, 取四子·心經·近思錄·朱子書及我朝諸先正文字, 時加繙閱, 自洙泗以還, 群儒所說性命理氣之原, 人倫

데 讀書와 窮理에 대한 공부법은 그의 文學論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讀書와 窮理의 방법으로 서파가 제시한 것은 虛心·平氣·沈潛·涵泳이다. 예컨대 지나치게 생각하는 '用意太過'의 공부법은 도리어 眞見을 어둡게 한다고 하였다. 또 이 방법은 대강 보고지나는 '泛泛看過'의 공부법과 다른 듯하지만 공부에 있어서 하나의 큰 병이 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하였다.[25]

아래의 예문을 참조하여 서파의 用功法과 文章 作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 朱子는, "學問을 할 때는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고〔致誠〕 오래도록 인내해야 하며〔耐久〕 별도로 비교하며 앞을 생각하고 뒤를 따져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중략… 처음 배우는 자들이 허다한 言語와 허다한 安排를 제거하여 물리치고 단지 이 '用功'에 의지한다면 그 道에 나아가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26]

> 用功이, 비록 오래되어도 見·效·入 등의 글자를 구하지 말라. 意味를 親切하고 明白하게 볼 수 있다면 人慾이 다하는 곳에서 天理가 流行하는 境界를 거의 볼 수 있을 것이다.[27]

서파는 '見○○', '效○○', '入○○' 등을 학문의 경향성을 대변하는 용

日用之常, 讀書窮理之方, 存心處事之要, 無不一一潛心而玩意焉."

25) 「困得篇, 上」, 『西坡集』 卷27, 523면. "讀書窮理, 必須虛心平氣, 沈潛涵泳, 可以有得矣. 若用意太過, 則反晦眞見, 雖與泛泛看過者有異, 然此亦一大病也. 不可不知."

26) 「困得篇, 上」, 『西坡集』 卷27, 523면. "朱子曰, 爲學, 只要致誠耐久, 不須別生計較思前筭後也. …中略… 初學除却許多言語許多安排, 只依此用功, 則不患其不進於道也."

27) 「困得篇, 上」, 『西坡集』 卷27, 523면 "用功雖久莫求見效入箇字, 意味見得親切明白, 則人慾盡處, 天理流行境界, 庶可見矣."

어로 의미지어 특정한 경향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이념적(주로 朱子學的인) 구속에서 보다 자유롭기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창작 대상의 內涵에 대한 이해와 체득을 강조하고 그 결과로 人慾이 다하는 곳에서 天理가 流行하는 窮極의 경계를 발견할 것을 주장하였다.

見·效·入 등이 학문의 경향성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작가의 문학세계를 평할 때 典範을 설정하여 '由○入○', '見○○', '效○○', '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위의 서파의 주장을 참조한다면 그는 특정시대·특정 작가를 典範化하여 固守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典範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人慾이 다하고 天理가 流行하는 境界 즉 '眞見'을 보지 못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28]

이렇게 볼 때 서파가 문장창작에서 강조한 것은 思想의 제약과 구속에서 벗어나 광범한 用功 즉 학습을 바탕하여 작가만의 眞實하고 個性的인 문학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작에서의 '眞見', '眞情'의 가치를 강조한 그의 견해가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言志論과 和暢性情·貴節治道

『書經·舜典』에서 詩의 本質을 '言志'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미 고전

---

28) 眞見'은 바로 天機·天眞의 의미에 다름아니다 吳道一이 「詩稿自序」(『西坡集』 卷17, 330면)에서 "詩 天機也"라 한 것이나, 「題崔擎天詩稿後」(『西坡集』 卷19, 374면)에서 詩評의 기준으로 "玆足以狀擎天之爲詩 而第其所欠者, 天然之意趣"라고 할 때, 天機와 天然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점을 미루어 위의 眞見이나 天理 역시 그와 동일한 의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任侑炅이 주장한 견해 역시 참고할 만하다. '임유경은 天機란 인간에게 내재된 순수본질로서의 天眞을 가리키며 그 근원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늘의 비밀·조화의 신비'가 깃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18세기 天機論의 特徵」 『韓國漢文學硏究』 10집 1996 참조)

적이고 일반적인 견해이다. 서파 역시 詩의 본질을 '言志'로 정의한다.

> 내가 또 편지를 보냈다. "어찌 그리도 지나치게 겸손합니까? 詩는 많이 짓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말할 따름입니다. 바라건대 金玉같은 詩를 아끼지 말고 빨리 한 구절을 지어주십시오." …中略… 내가 또 편지를 보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대의 아름다운 詩句이며, 典例에 따라 장식한 글이 아니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온〔出於中心〕 글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은 이토록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도 부끄러워만 하십니까?" …中略… 내가 또 편지를 보냈다. "古人의 말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사물에 나아가 親切히 하는 것은 詩家에서 더욱 어려운 일 입니다."29)

서파가 1686년의 燕行때 쓴 日記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흔히 '志'는 '意'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서파는 '意'의 개념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펴고 있어 주목된다.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모든 일에 있어서 거짓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意이며 情이 아니다. 그러므로,
> "意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지만 情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다."라고 한다.30)

위에서 '意'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바를 꾸밈없이 나타낸 '心之所之'의 그것이 아니다. 『論語·子罕』에서 말하는 '私意' 즉 개인의 욕심에 가깝

29) 「丙寅燕行日乘」, 『西坡集』 卷26, 517~518면. "余又書示, 何撝謙太過, 詩不在多, 言志而已. 願毋吝金玉, 亟惠一絶, …中略… 余又書示, 今此願得璟章, 非飾例之言, 出於中心, 先生何不諒至此. 還切赧顔? …中略… 余又書示用古人語模寫, 卽事親切, 此尤詩家之所難也."

30) 「困得篇, 上」, 『西坡集』 卷27, 522~523면. "凡事假作者, 意也, 非情也. 故曰意可以僞爲、情不可以僞爲."

다.[31] 위의 예문에서는 차라리 情이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것'[32]으로서 '心之所之'의 의미에 근접한다. 이렇게 본다면 '詩言志'는 '詩言中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파가 수용한 또다른 시의 본질적 기능은 性情을 和暢하게 하고 治道를 賁飾하는 것이다.

> 【1687년】 ○ (12월, 左副承旨에 배임되었다.) ○ (들어가 임금을 알현하고 밤에 모시고 있으면서 御製詩에 和答하였다.) …중략…
>
> 공이 또 말하기를,
>
> "詩道는 본래 排比·聲律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性情을 和暢하게 하고 治道를 賁飾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엎드려 임금께서 지으신 詩를 보니 위로는 上下가 함께 즐거워함을 말씀하시고 아래로는 신하들에게 힘써 경계하도록하시니 진실로 詩道를 깊이 체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밤기운이 맑은 때, 만약 이를 바탕으로 聲律 같은 末端의 것을 버리고 性情의 根本을 구하신다면 學問의 功을 미루어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33]

承旨에 배임되어 夜對할 때 숙종의 시를 두고 詩道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그는 詩가 추구해야 할 본원이 性情을 온화하며 따뜻하게 하고 治道를 꾸밀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때의 性情은 朱子를 비롯한 李滉·李珥 등이 강조하는 '本然之性', '性情之情'과 다른 시각에서 心性의 본원적 순수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파는 『詩經』이 閭巷의 歌謠이지만 후세의 수많은 문장가들의 이름난 작품보

---

31) 『論語·子罕』. "子絶四. 毋意·毋必·毋固·毋我. 〔注〕 意, 私意也 "

32) '情'이 '꾸밈없는 사실'의 개념으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孟子·離婁 下』. "聲聞過情, 君子恥之."

33) 「年譜」, 『西坡集』 卷29, 563면. " 【丁卯】 十二月, 移拜左副承旨. ○ 入侍夜對, 和進御製詩) …中略… 公又曰, 詩道本不以排比聲律爲貴, 有可以和暢性情 賁飾治道者 伏見聖製, 上言上下同樂, 下言勉戒臣隣, 誠深得於詩道矣 當夜氣淸明之時, 若因此而捨聲律之末, 求諸性情之本 則可以推廣學問之功矣 "

다 더욱 뛰어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34]

治道의 賁飾은 詩가 가지는 美學的 측면과 효용적 기능성을 제고한 의식의 소산이다. 詩를 통하여 治世를 선전하고 상하간의 단결과 화목을 꾀하고 신하를 勸勉하게 하는 교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聲律·排比·擬古的 模寫 등 시의 형식적 측면에 경도하는 것을 반대하며 性情의 근본을 체득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와같은 '心' 혹은 '性情'의 개념은 17세기 이후 중국과 우리 나라의 詩論의 흐름 속에서 性情·天機·神情·興懷·自然·眞 등이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래장에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造化作用과 純粹 情緖로서의 天機

17세기 이후의 조선 문단에서 주목할 만한 이론의 하나는 '天機'에 관한 것이다.[35] '天機'가 가장 먼저 사용된 문헌으로 거론되는 『莊子』에서조차

---

34) 「詩稿自序」, 『西坡集』 卷17, 330면. "詩三百, 大抵閭巷之歌謠也. 曷嘗掐擢心肝, 務采色誇聲音, 如秉觚墨者爲也. 後之名家作述以千萬數而莫與之齒者, 以此哉."

35) 기왕의 연구에서 天機는 주로 작가와 연구자에 따라 정의·정리되었다. ; 장원철, 「朝鮮後期 文學思想의 展開와 天氣論」(정문연 석사학위논문, 1982), 김흥규, 『朝鮮後期 詩經論과 詩意識』(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정연봉 「張維 詩文學 硏究」(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89), 윤재민 「朝鮮後期 中人層 漢文學의 硏究」(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0), 이상진 「朝鮮後期 閭巷文學의 展開過程과 文藝意識」(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1), 최신호 「朝鮮後期 物性論과 文學思想」(『동양학』23집,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993), 이승수 「17세기말 天氣論의 形成과 認識의 基盤」(『한국한문학연구』18집, 1995), 김혜숙 「韓國漢詩論에 있어서의 天機에 대한 考察 1」(『한국한시연구』2집, 한국한시학회, 1994), - 「韓國漢詩論에 있어서의 天機에 대한 考察 2」(『한국한시연구』3집, 한국한시학회, 1995), 진영미 『農巖 金昌協 詩論 硏究』(보고사, 1999) 등이 있다. 이동환은 天氣論을 詩理論의 범주에서만이 아니라 조선후기의 書·畵論을 포섭하는 美學思想의 범주로 정립하였다. 그는 天機가 '비밀스런 자연의 生命機作 및 이것의 인간에게의 內在化로서의 靈性·靈能'의 기본 개념에 '靈生 - 眞 - 造作的이지 않는 自然態'와 '妙思 - 天機自動 - 규율에 구속받지 않는 自由'의 창조적 측면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朝鮮後期 '天機論'의 槪念

'天機'의 개념은 타고난 天眞한 마음[36], 自然의 중추기관 혹은 근본정신[37], 天然의 性狀 혹은 天然의 造化[38]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莊子』에서의 '天'의 개념이 일차적인 하늘[天]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自然과 道의 含蓄이듯이 '天機' 역시 이와 관련한 다른 용어들 예컨대 天成·天放·天眞 등과의 복합적 개념형성에 의해서 '天地의 機密, 造化의 作用'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39]

이렇게 볼 때 '天機'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原典에서의 의미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문학론 및 시대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서파와 동시대의 金昌協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 詩는 性情의 발현이며 天機의 움직임이다 唐人의 詩는 이것을 터득하였기 때문에 初·盛·中·晩唐을 논할 것 없이 대개 모두 自然에 가까웠다. 지금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聲色을 摸象하고 氣格에 힘써 古人을 追踵한다면 그 聲音과 면모는 비록 흡사할 지라도 神情興會는 모두 서로 같지 않을 것이다[40]

김창협은 載道論에 바탕하여 詩가 性情의 발현이며 天機의 움직임이라고 정의하고 唐詩가 그것을 터득하여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天機의 속성을

및 美學理念과 그 文藝思想史的 聯關」(『한국한문학연구』28집, 2001, 123~124면 참조.)

36) 『莊子·大宗師篇』. "其嗜欲深者, 其天機淺."

37) 『莊子·天運篇』. "聖也者, 達於情而遂於命也. 天機不張而五官皆備, 此之謂天樂, 無言而心說."

38) 『莊子·秋水篇』. "今予, 動吾天機而不知其所以然.", "夫天機之所動, 何可易邪?"

39) 정연봉, 「朝鮮前期 性情 論議와 張維의 天氣論」, 『민족문화연구』 23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199~200면 참조.

40) 「雜識·外篇」, 『農巖集』 卷34(『叢刊』Ⅴ.162), 375면. "詩者, 性情之發, 而天機之動也 唐人詩有得於此, 故無論初盛中晩, 大抵皆近自然, 今不知此, 而專欲摸象聲色, 黽勉氣格, 以追踵古人, 則其聲音面貌, 雖或髣髴, 而神情興會, 都不相似."

動·活·變化와 같은 用으로 규정하여 性보다 情에 밀접한 것, 自然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하였다.[41] 그러나 그는 천기를 인식·활용하는 주체인 인간의 誤用으로 유발될 폐해를 우려하여 情과 관련된 天機 혹은 天機 자체만의 動을 경계하여 自然의 道나 性情과의 관련 속에서 天機를 이해하였다.[42]

그렇다면 서파는 '天氣'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 詩는 天機이다. 天機가 얕으면 조각하여 아로새긴 것이 공교롭고, 그리고 꾸민 것이 화려하여도 또한 말단일 따름이다. 詩三百篇은 대저 閭巷의 歌謠이다. 어찌 일찍이 가슴 속의 것을 억지로 뽑아내고 彩色을 힘쓰며 聲音을 자랑하기를 붓이나 먹을 잡아쥔 문장가와 같이 하였겠는가? 후세의 이름난 작가들의 작품이 천만편이나 되지만 閭巷의 歌謠와 비견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43]

서파는 '詩는 天機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詩가 가슴 속의 것을 억지로 뽑아내거나 彩色이나 聲音을 힘쓰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天機가 시의 형식 보다는 내용 특히, 시인의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출임을 의미한다. 수천 수만편의 문장가들의 조각하여 아로새긴 시보다 閭巷人의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노래한 점에서 『詩經』의 가치를 긍정한 점이나 杜甫·李白, 韓愈를 詩의 '三大家'로 지칭하며 이들의 작품

41) 金昌協은 "雲木嚶嚶鳥, 春潭發發魚, 天機取次會, 於此欲忘書"(「次道以韻」, 『農巖集』 卷5. 391~392면.)의 만물이 自然의 理法을 따르는 광경에서 天機의 流動을 관찰하였다 또 "天機袞袞何曾息"(「道以自書院入城口號以贈」, 『農巖集』 卷5. 391면.)에서는 變化하는 天機의 모습을 강하게 부각하여 인식시켰다

42) 晉永美는 농암에게 天機가 시의 형식 보다는 內容이나 詩精神과 밀접한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타당한 견해라 생각된다.(『農巖 金昌協 詩論 硏究』, 보고사, 1999. 157~187 참조.)

43) 「詩稿自序」, 『西坡集』 卷17, 330면. "詩, 天機也. 苟天機淺, 雖雕鏤以爲工, 繪飾以爲華, 抑末矣. 詩三百, 大抵閭巷之歌謠也. 曷嘗掐擢心肝, 務采色誇聲音, 如秉觚墨者爲也. 後之名家作述以千萬數而莫與之齒者, 以此哉."

이 天然의 意趣를 구비하였다고 칭송한 것도 이와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44] 이것은 서파가 天機를 인간의 純粹한 情緖의 발출이며 詩人의 性情 특히 情에 밀접한 그것을 自然스럽게 표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45]

이 때문에 서파는 작자의 순수 정감의 표출 결과로서 詩文의 가치를 인식하여 당대의 일반 문인들 보다 적극적으로 詩文의 가치를 옹호하는 貫道論을 주장하였다. 바로 이점에서 서파의 天機의 개념은 그것의 誤用으로 인한 폐해의 유발을 우려하여 自然의 道나 性情과의 관련 속에서 天機를 이해한 김창협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天機를 인간의 純粹한 情緖의 발출이며 詩人의 情에 밀접한 것을 自然스럽게 표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서파가 天機의 본래적인 의미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天地의 機密, 造化의 作用'이라는 광범위한 의미에 자신의 문학론 등을 결합시켜 복합적인 개념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의 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봄날 높은 곳에 올라서	「春日登高」
단정히 앉아 典墳을 음미하고	端居味典墳,
종일토록 꼿꼿이 앉아 보낸다	兀兀窮晬昕.
문닫고 눈깜짝할 사이 열흘이 지나	閉戶倏經旬,
봄일이 늦었음을 살피지 못하였다.	不省春事晩.

---

44) 「題崔摯天詩稿後」, 『西坡集』 卷19, 373~374면 "玆足以狀摯天之爲詩, 而第其所欠者, 天然之意趣, 淵然之光色, 森然之格力而已 大抵淸麗者欠遒健, 雅都者鮮勁悍, 物之理然也 詩之道, 莫盛於唐, 而自韓·李·杜三大家外, 類皆輕脆纖麗, 罕有氣勢遒鍊骨法矜莊者"

45) 서파는 그가 純澤한 才情에서 詩를 짓고 辭가 鄙俚하며 格調가 卑近하지만 支離하거나 華靡함을 일삼기 보다는 곧바로 性情(情에 보다 밀접한 것으로서의 性情)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詩稿自序」, 『西坡集』 卷17, 330면)

한가한 날 우연히 걸음을 내디뎌	暇日偶引步,
바삐바삐 오래된 비탈길을 오르니.	薄言登古陂.
산꽃들 나를 향해 웃음짓고	山花向我笑,
환하고 어여쁜 모습 자랑하네.	灼爍誇妍姿.
명아주지팡이 짚고 느긋이 어정대며	扶藜倦容與,
광활하게 펼쳐진 저 멀리를 바라본다.	曠然舒遐觀
긴 제방의 버드나무는 바람에 한들한들	長堤柳搖風.
무너진 동산의 풀에는 아지랑이 어른어른.	廢苑草織煙.
둥지 짓는 제비들은 지지배배 지지배배	營巢燕喃喃,
어딘가를 향하여 나비들 훨훨 날아간다.	趁向蝶翩翩.
一元은 조화의 기운을 빚어내고	一元釀和氣,
온갖 物象들은 生의 의지를 펼친다.	萬彙敷生意.
玄樞는 누가 주관하는가?	玄樞孰主張.
至理는 妙하여 논하기 어렵네.	至理妙難議.
興이 오니 天機가 활발하고	興來天機活,
心境은 절로 光大하게 드러난다.	心境自昭融.
고금의 이 즐거움을 아는 이는	古今知此樂,
오직 曾點 뿐이리라.[46]	其惟浴沂翁.

봄날 비탈길에 올라 바라본 주변의 경물을 읊은 시다. 산꽃들은 어여쁜 자태를 뽐내고 늘어진 버들은 바람따라 한들거리며 풀에는 아지랑이가 어른거린다. 돌아온 제비는 둥지를 트느라 부산하고 꽃을 찾는 나비는 날아다닌다. 山水의 自然性에서, 봄날의 生氣 가득한 物象에서 서파가 느낀 것은 天理의 流行과 奧妙한 理致다. 그것이 興을 일으키고 天機의 活動을 야기한다. 이 시는 觀物 → 認至理 → 興動 → 天機活에 이르는 서파의 인식과정을 잘 나타낸다.

天機의 活潑함을 즐길 줄 아는 인물로 제시된 曾點은 孔子가 여러 제자

46) 「春日登高」, 『西坡集』 卷2, 26면.

들의 뜻을 물었을 때,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고 하여 공자의 인정을 받았다. 그것은 증점이 人慾이 다한 곳에 天理가 유행함을 깨달아 일상의 떳떳함을 즐기며 천지 만물이 本性을 얻은 妙를 言表하였기 때문이다.[47] 여기에서 天機의 의미가 '天地의 機密, 造化의 作用 혹은 天地自然의 理法的 秩序'임이 확인된다.[48]

3. 결론

이상에서 살핀 西坡 吳道一의 文學論은 17세기에 전개된 다양한 문학 양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새로운 문학론의 제안 등을 통하여 18세기 문

---

47) 『論語·先進』, "點 爾, 何如?…中略… 曰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 喟然嘆曰, 吾與點也 〔注〕 曾點之學, 蓋有以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 隨處充滿 無所欠闕, 故其動靜之際, 從容如此, 而其言志則又不過卽其所居之位, 樂其日用之常, 初無舍己爲人之意, 而其氣脈次悠然, 直與天地萬物 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隱然自見於言外.

48) 이외에 天機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① 숲의 정자에 봄이 오니 꽃과 나무 곱고 / 섬돌 에워싼 복사꽃 살구꽃 서로를 찾는 듯 / 어젯밤 적은 비에 꽃의 뜻 재촉하여 / 엷은 자주 짙은 붉은 꽃 일시에 폈네 / 잎 아래 미친 벌들 마음대로 오가고 / 가지 위 예쁜 새들 오르락 내리락 / 達者는 理를 깨우침을 귀하게 여기니 / 이를 대하니 저도 모르게 天機가 녹아드네 / 곁의 어느 누가 내 마음의 즐거움 알리오? / 붓쥐고 외로이 읊으며 혼자 시를 짓네.(林亭春至卉木麗/擁階桃杏相撩挐/昨夜小雨摧花意,/淺紫深紅一時破/葉底狂蜂自往還/枝上嬌禽互飜飛/達者觀物貴觀理/對此不覺融天機/旁人誰識余心樂/把筆孤吟自題詩, 「雨後卽事」, 『西坡集』 卷2, 16면) ② 벗을 따르니 온갖 근심 모두 사라지고 / 눈 아래 우뚝 솟은 험준한 산을 사랑한다 / 두루 보는 것은 謝靈運의 興에 관계없고 / 누워 그림을 감상함은 宗炳의 間과 다르다 / 天機 고요한 곳에서 참모습을 보고 / 道體의 유래가 한가지임을 깨닫는다 / 석달동안 어김이 없어야 바야흐로 즐거우니 / 당일의 孔門에서 顔淵을 자주 칭찬하였네 (朋從百慮已全剛/眼底崢嶸只愛山/歷覽非關靈運興/臥遊還異少文間/天機靜處看眞面/道體從來覺一般/三月不違方是樂/孔門當日亟稱顔, 「樂山」, 『西坡集』 卷2, 33면) ③ 우뚝 구름 끝에 솟아나 / 정정히 괴이한 모양 날아갈 듯 / 천만 劫의 세월을 지내오며 / 神鬼함 속에는 天機가 깃들었네 (卓立干雲表/亭亭怪欲飛/閱來千萬劫/神鬼秘天機 「飛鳳塔」, 『西坡集』 卷3, 41면)

학론의 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서파는 문학사의 추이를 '才文世降'의 하강·쇠퇴의 측면에서 이해하였다. 그는 당대의 俗化되거나 藻華를 숭상하는 자들은 단순모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古文으로 今文의 비루한 습속을 변화시켜 鋪張·潤色의 아름다움을 다하고 국가의 번성을 표현한다면 문장의 기능[用]과 아름다움[美]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식에 중세적인 사회윤리개념의 회복을 사상적 기저로 삼아 韓愈의 貫道論을 수용하여 道文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道와 經術을 나무의 뿌리로, 文章을 열매로 비유하여 전자와 후자가 결코 별개가 아닌 相補的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文章에서 文藝趣向의 것보다는 經術과 관련되는 實用文類에 중심을 두고 文章의 가치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見○○', '效○○', '入○○' 등을 학문의 경향성을 대변하는 용어로 규정하여 특정한 경향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이념적 구속에서 자유롭기를 제안하였다. 이것에 연계하여 문학에서도 특정한 典範에 얽매이기 보다는 연구대상의 內涵에 대한 이해와 체득을 통하여 人慾이 다하고 天理가 流行하는 窮極의 경계, 사물의 참된 모습 즉 '眞見', '眞情'을 발견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文學 典範의 설정에 대한 그 자신의 부정과는 달리 李白·杜甫·韓愈를 文章의 三大家로 추숭하고 이들을 典範으로 설정함으로써 문학적 전범의 구속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詩의 본질에 대하여는 『書經』의 '詩言志'의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를 수용하여 나름의 독특한 해석을 덧붙였다. '意'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 '情'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情이 '心之所之'의 의미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詩의 본질을 '言志'에서 '言情'의 영역에까지 확장시켰다.

詩의 기능으로는 性情을 和暢하게 하고 治道를 賁飾하는 점을 거론하였다. 그가 의미하는 性情은 朱子를 비롯한 李滉·李珥 등이 강조하는 '本然之性', '性情之情'과 다른 시각에서 心性의 본원적 순수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閭巷의 謳謠인 『詩經』의 가치를 수많은 문장가들의 유명한 작품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聲律·排比·擬古的 模寫 등의 시의 형식적 측면에의 경도를 비판하였다.

17세기 이후의 조선 문단에서 주목받는 '天機'에 관하여는 자연물태에 대한 觀物 → 認至理 → 興動 → 天機活에 이르는 인식을 거쳐 '天地의 機密, 造化의 作用 혹은 天地自然의 理法的 秩序'로서의 본원적 의미 외에 '인간의 純粹한 情緖의 발출이며 詩人의 情에 밀접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점은 서파 보다 조금 뒷시기의 金昌協이 天機의 誤用으로 인한 폐해의 유발을 우려하여 自然의 道나 性情과의 관련 속에서 天機를 이해한 것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人間에 대한 신뢰, 인간의 情緖 표출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자료

『論語』

『莊子』

『佔畢齋集』, 『叢刊』Ⅴ.12.

『思齋集』, 『叢刊』Ⅴ.23

『月汀集』, 『叢刊』Ⅴ.47.

『西坡集』, 『叢刊』Ⅴ.152.

『農巖集』, 『叢刊』Ⅴ.162.

『臺山全書』, 계명문화사, 1985.

『肅宗實錄』, 『朝鮮王朝實錄』Ⅴ.40.

『韓昌黎集』, 상무인서관, 1958.

■ 저서 및 논문

진영미, 『農巖 金昌協 詩論 硏究』, 보고사, 1999.

郭預衡, 『中國散文史, 上』, 上海古籍出版社, 2000.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김홍규, 『朝鮮後期 詩經論과 詩意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정연봉, 「張維 詩文學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89.

윤재민, 「朝鮮後期 中人層 漢文學의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0.

이상진, 「朝鮮後期 閭巷文學의 展開過程과 文藝意識」,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1.

최신호, 「朝鮮後期 物性論과 文學思想」, 『동양학』23집,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993.

이승수, 「17세기말 天氣論의 形成과 認識의 基盤」, 『한국한문학연구』18집, 1995.

김혜숙, 「韓國漢詩論에 있어서의 天機에 대한 考察 1」, 『한국한시연구』2집, 한국한시학회, 1994.

김혜숙, 「韓國漢詩論에 있어서의 天機에 대한 考察 2」, 『한국한시연구』3집, 한국한시학회, 1995.

이동환, 「朝鮮後期 '天機論'의 槪念 및 美學理念과 그 文藝思想史的 聯關」, 『한국한문학연구』28집, 2001.

정연봉, 「朝鮮前期 性情 論議와 張維의 天氣論」, 『민족문화연구』 23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秦漢古文派의 성립」, 『한국한문학연구』18집, 한국한문학회, 1995.

우응순, 「17세기 古文論의 背景과 歷史的 性格」, 『고전비평 연구 1』, 태학사, 1997.

임유경, 「18세기 天機論의 特徵」, 『韓國漢文學硏究』10집, 1996.

장원철, 「朝鮮後期 文學思想의 展開와 天氣論」,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논문투고일 : 2003. 12. 19 심사시작일 : 2004. 1. 6 심사완료일 2004 1 18

Abstract

A study of the literary theory of Seo-pha(西坡) Oh-doe il(吳道一)

Kim, Young-Ju

The literary theory of Seo-pha(西坡) Oh-doe il(吳道一) presents a direction of the literary theory in 18th century through the critical acception toward the various literary aspect which was spreaded out in 17th century and the new literary theory's suggestion

Seo-pha(西坡) understands a shift of Jae(才), Mun(文), the times(世) from a decline and falling point of view(才文世降) So, he regards a writer who was vulgarized and pursue the decoration as an imitator. If Go-mun(古文) changed the mean habit of Gem-mun(今文), and expressed a beauty of ornate style of writing and a flourishing of the nation, he thought it would recover the function and beauty of writing.

Under the ideological basis for the recovery of the medieval social morality, he accepts Gwan-doe-ron(貫道論) of Han-yue(韓愈), and suggest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of Doe(道) and Mun(文). But he emphasises on the worth and necessity of the writings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He prescribes '見○○, 效○○, 入○○' as a term for the speaking by proxy of the tendency of learning, and suggests the pursuit of a free from a specific learning tendency and a ideological restriction In a literary field, he suggests the revelation of Cheon-gee(天機), Jin-geon(眞見), Jin-jeong(眞情).

About the true nature of the poetry, he defines as Si-oen-jee(詩言志) and Si-oen-jeong(詩言情).

He thinks the function of the poetry as a brightness of one's nature and an ornament of the political ethics. He recognizes of the worth of 『Si-geong(詩經)』 as a folk song of the grass roots and criticizes to the tendency of the formal creation of the poetry.

He regards Cheon-gee(天機) as a secret of the nature, the pure emotion, the heart of a poet.

Key Word

Jae · Mun · the time, Jin-geon, Jin-jeong, Si-oen-jeong, a brightness of one's nature, an ornament of the political ethics, Cheon-gee